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

다카치 토모나리[†]

우송대학교

The Degrees of Modality of the Grammatical Collocations *-nun pep-i-ta* and *-ki malyen-i-ta*

Takachi Tomonari[†]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grammatical collocations *-nun pep-i-ta* and *-ki malyen-i-ta* in terms of modal meaning. Chapter 2 considers the grammatical and lexical components of *-nun pep-i-ta* and *-ki malyen-i-ta*, and Chapter 3 investigat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llocations. Both phrases mean “universal truth” or “general facts in common.” However, in terms of co-occurrences with the grammatical forms *-(e)ya ha-ta*, *-keyss-*, and other forms that have epistemic modal meanings, *-nun pep-i-ta* and *-ki malyen-i-ta* take on a different color. These differences have been ascribed to the distinctiveness between the modal meanings of *-nun* and *-ki*. The form *-nun* is associated with a realis feature, whereas *-ki* expresses an irrealis one. In Chapter 4, we investigate degrees of modality for both *-nun pep-i-ta* and *-ki malyen-i-ta*. After considering *-nun pep-i-ta* and *-ki malyen-i-ta* in terms of semantics and syntax, and adopting a prototype approach regarding their degrees of modality,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 express epistemic modal and usuality. However, they are not real-modals but pseudo-modals.

Keywords: ‘-nun pep-i-ta’, ‘-ki malyen-i-ta’, grammatical collocation, modality, modal meaning, epistemic, usuality, degrees of modality

1. 서 론

이 논문은 현대 한국어의 양태(modality) 체계 구명(究明)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 이 논문은 다카치(2014)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를 재검토하여 대폭 수정 및 가필한 것임을 밝힌다. 초고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에서 보여지는 문제들은 모두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Corresponding author: tomonari_grandsamis@msn.com



소위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¹⁾로 간주되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통사 및 기능적 제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법적 연어의 양태 정도성(degrees of modality)을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장경희(1985) 및 박재연(2006)에서 양태소(modal maker)에 의한 양태 체계의 모습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양태소는 양태 기능을 갖춘 선어말 어미(pre-final ending)나 종결형 어미(final ending)이기 때문에 문법화(grammaticalization)가 상당히 진행된 형태들이다. 양태를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의 하나로 간주했을 때 양태소가 양태 범주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다양한 양태 의미(modal meaning)를 실현하기 위한 문법적 연어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카치(2016)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어의 양태 의미 실현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양태소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증거성(evidentiality), 동적양태(dynamic modality)를 나타내는 것에 국한된다. 이러한 특징은 양태소가 화자 지향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제3자를 향한 [의무], [허가], [권장], 제3자의 [의지] 등을 표현하거나 언급되는 명제 내용의 진리치를 빈도성(usuality)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장면도 있다. 문법적 연어로 간주되는 형식에는 양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이들은 양태소로는 표현되지 않는 양태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국어 양태 체계의 구명을 위해서는 양태 의미 실현 기능을 가진 문법적 연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당연]의 양태 의미를 실현하는 문법적 연어인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형태들의 양태 정도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양희(2005), 이금희(2012)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 간의 의미적 유사점과 상이점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양태 표지로 간주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가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해서 양태 표지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견해를 보완하고, 이 문법적 연어들이 양태 정도성의 관점에서 양태 표지로 간주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개관한다. 둘째, 선행연구의 견해를 검증 및 보완하기 위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통사 및 의미적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에 대해 원형적 접근(prototype approach)을 시도한다. 넷째, 고찰 결과를 정리한다.

1) 임근석(2008: 123)에 의하면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란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사적 구성이라는 모습을 가지며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한다고 하였다. 본고의 고찰 대상인 ‘-는 법이다’ 및 ‘-기 마련이다’ 구성은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결합한 통사적 구조를 갖추면서 [당연성]과 같은 양태 의미(modal meaning)를 나타내는 기능적 특징을 보유하기 때문에 문법적 연어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된 21세기 세종계획의 결과물인 현대어 말뭉치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한 예문에 근거를 두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간혹 적절한 예문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한국어 원어민의 협조에 의한 예문을 제시한다.

2. 구성 요소 개관

여기서는 문법적 연어인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구성하는 문법 요소 및 어휘 요소의 의미 기능적 특징을 개관하고자 한다.

2.1. 관형사형 어미 ‘-는’

관형사형 ‘-는’의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이곳에서는 문법 체계에서 ‘-는’의 위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는’의 의미 기능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남기심 · 고영근(1993), 염선모(1995), 이익섭 · 채완(1999)에서는 ‘-는’을 현재 시제(present tense) 형태로 보았다. 아래의 예문 (1)에서 ‘-는’이 사용된 관형절이 표현하는 사태의 시간과 발화 시점이 일치한다.

- (1) 우주의 비밀을 전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기도 곤란합니다. <BRHO0105.txt>

그런데 다카치(2014: 51-52)에서 지적했듯이 ‘-는’은 미래 사태에 대해 언급할 때나 특정한 지시적 시간 구분에 구속을 받지 않을 때도 사용될 수 있다. (2가)의 경우 미래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는’이 사용되고, (2나)의 경우는 [현재]나 [미래]등 지시적 시간 구분의 구속에서 벗어난 상시적이고 반복적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 ‘-는’이 쓰인다.

- (2) 가. 내일(10월 1일)은 스물 네번째를 맞는 세계 채식주의자의 날이다.

<5BA01E07.txt>

- 나. 특별한 회의도 없고 할 일이 없는데도 인수위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는 자문위원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7BB03B07.txt>

남기심(2001) 및 이광호(2001)에서는 ‘-는’을 현재 진행상(present progressive)의 문법 표지로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래 예문 (3가)에서 ‘-는’은 부사어 ‘지금’의 의미 특성과 조화되어 [현재 진행]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래 예문 (3나, 다)를 통해

반증이 가능하듯이 ‘-는’은 상(aspect) 기능을 가진 ‘-어 있다’나 ‘-고 있다’와 자연스러운 결합을 이룬다. 만약 ‘-는’을 현재 진행상의 문법 표지로 간주한다면 ‘-어 있는’이나 ‘-고 있는’과 같은 결합은 무의미 혹은 불필요한 결합이 되어야 한다.

- (3) 가. 지금 내가 보는 텍스트는 그 정보로부터 간접 받지 않는다. <2BH9217.txt>
 나.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은 민중문학의 성격, 체제 개혁의 방법론과 함께 읽혀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코 회피되어서는 안 될 선택 과제이다. <2BH9217.txt>
 다. 리얼리즘론이 제기하고 있는 총체성의 문제는 증산층의 안이한 개인주의적 삶의 태도를 반성시키면서, 소극적으로는 소득의 격차 문제,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계층론을 계급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다. <2BH9217.txt>

고영근(2007)에서는 ‘-는’을 ‘직설 관형사형’이라고 불렀으며 기능적으로는 직설법(indicative)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 현실로 간주할 수 있는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 ‘-는’이 사용된다고 본 것이다²⁾.

위에서 개관한 선행연구의 견해들은 ‘-는’의 문법 범주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는’의 의미 기능적 제상을 잘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는’의 의미 기능적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는’의 의미 기능

형태	기능	의미	표현되는 사태
‘-는’	시제적 기능	현재	발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태
		미래	미래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태
		시간적 총칭	상시적/반복적 사태
	상적 기능	현재 진행	발화 시점에서 진행 중 사태
	양태적 기능	현실성	화자 입장에서 현실로 간주되는 사태

2.2. 명사형 어미 ‘-기’

명사형 어미 ‘-기’에는 명사화 보문소로서의 쓰임, 파생명사로서의 쓰임, 종결형 어미

2) 고영근(2007: 181-182)에서는 ‘-는’을 직설법 형태 ‘-느’와 부정관형사형 ‘-(으)ㄴ’의 결합체로 해석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임동훈(2008: 241)에서는 ‘-(으)ㄴ’을 서설법(realis mood)의 관형사형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는’을 구성하는 문법 요소의 어느 부분에 직설법 혹은 서설법적 기능이 있는지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는’이라는 구성체에 양태적 기능이 있음을 분명히 것으로 보인다.

로서의 쓰임이 있다. 본고는 ‘-기’를 내포한 ‘-기 마련이다’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문소로서의 쓰임을 선행연구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송창선(1990: 15-16)에서는 선어말 어미 ‘-(어)ㄴ-’의 개입을 허용하는 ‘-기’를 문장 명사화소, 허용하지 않는 ‘-기’를 명제 명사화소라고 지칭하여 구별했는데, ‘-기’는 명제 명사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문숙영(2009: 317-329)에서도 ‘-기’에 ‘-(어)ㄴ-’이 선행하는 경우는 ‘-(어)ㄴ기 때문에’, ‘-(어)ㄴ기 쉽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창선(1990)에서는 ‘-기’에는 [기대성], [비결정성], [미래성]의 의미 특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기 마련이다’도 ‘-(어)ㄴ-’의 선행을 제한하는 점에서 ‘-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박종원(2003: 157-161)에 의하면 ‘일쑤이다’나 ‘십상이다’ 등은 ‘-기’와만 호응하는 상위문 용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일쑤이다’는 어떤 사태가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십상이다’는 ‘십중팔구’와 같이 높은 개연성을 나타낸다. 아래 예문(4가, 나)는 모두 개연성이 높은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 ‘-기’가 사용되는 것이며, [기대성], [비결정성], [미래성]의 의미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4) 가. 장애자인 경우 참석을 해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워 소외되기 일쑤이다.

〈2BA93A24.txt〉

나. 근소세 납세자 1인당 20만원 규모의 세금 경감은 솔직히 생활 안정을 위한 예비 자금보다는 불요불급의 소비 확대로 낭비되기 십상이다.

〈BRAE0199.txt〉

임동훈(2008) 및 박진호(2011)에서는 양태적 관점에서 서상법(irrealis mood)의 어미로 ‘-기’를 간주해서 [비현실성]의 의미 특성을 가짐을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살펴본 송창선(1990)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며, [기대성], [비결정성], [미래성]과 같은 ‘-기’의 의미 특성과 연관성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견해에 근거해서 ‘-기’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의 의미 기능

형태	기능	의미	표현되는 사태
‘-기’	시제적 기능	미래성	미래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태
	양태적 기능	비현실성	화자의 입장에서 비현실로 간주되는 사태

2.3. 명사 ‘법’과 ‘마련’

이곳에서는 문법적 연어 ‘는 법이다’ 및 ‘-기 마련이다’의 구성 요소 중 어휘 요소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바탕을 살펴 보도록 한다.

2.3.1. ‘법’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자립명사 ‘법’의 의미는 아래 (5가)가 보여주듯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5나~마)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용어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5) 자립명사 ‘법’의 의미(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 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 구도07(矩度) 「1」· 법률(法律) 「1」.
- 나. 『불교』 그 자체의 성품을 간직하여 변하지 않고 궤범(軌範)이 되어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 다. 『불교』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 라. 『불교』 물질과 정신의 온갖 것.
- 마. 『언어』 = 서법02(敍法).

한편, 의존명사 ‘법’의 의미는 [방법, 방식](6가), [도리, 이치](6나), [습성](6다), [당연함](6라), [개연성](6마)과 같이 다양하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의존명사 ‘법’의 의미(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 가. (어미 ‘-는’ 뒤에 쓰여) 방법이나 방식.
- 나. (어미 ‘-는’ 뒤에 쓰여)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
- 다. (어미 ‘-는’ 뒤에 쓰여) 행동하는 습성의 예(例)를 이르는 말.
- 라. (‘-(으)ㄴ/는 법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동작이나 상태가 당연함을 나타내는 말.
- 마. (어미 ‘-(으)ㄴ’ 뒤에 쓰여) 어떤 일이 그럴 것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이주행(2009: 192)에 의하면 [도리]나 [법규]의 의미를 가진 자립명사 ‘법’의 의미가 표백되면서 [개연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금희(2012: 62-64)에서는 자립명사 ‘법’의 의미가 [방법], [규정],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습성], [당연히 발생 되는 사건]의 의미로 전이되면서 의존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자립명사 ‘법’과 의존명사 ‘법’ 사이에는 연관성이 보인다. 자립명사 ‘법’을 [강제력이 수반된 사회적 규범]으로 보고 이것을 추상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사회집단 입장에서의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모범적인

개념인 것과 동시에 사회집단을 구속할 수 있는 강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특성을 가진 ‘법’은 상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법’이라는 개념은 [모범성], [강제성], [상시성]의 특성을 지닌 의미를 실현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의존명사 ‘법’의 다양한 의미들 중 (6가)는 자립명사 ‘법’의 [모범성], (6나)는 [모범성], [강제성], [상시성], (6다)는 [상시성], (6라)는 [모범성]과 [상시성], 그리고 (6마)의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함으로써 자립명사 ‘법’의 의미 특성이 약화된 결과 [개연성]의 의미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2.3.2. ‘마련’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마련’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구분이 되는데, 각 쓰임에 대한 의미 해석은 아래의 (7가, 나) 및 (8가~다)와 같다. 단, (8다)는 본고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7) 자립명사 ‘마련’의 의미(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가. 헤아려서 갖추.

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속셈이나 궁리.

(8) 의존명사 ‘마련’의 의미(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가. (‘-기/-게 마련이다’ 구성으로 쓰여) 당연히 그럴 것임을 나타내는 말.

나. (‘-(으)ㄴ/던 마련으로’ 구성으로 쓰여) ‘그런 정도나 상태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

다. 『북한어』 ‘망정01’의 북한어.

(8가, 나)의 쓰임은 (7가)의 [헤아려서 갖추]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 안효경(2001: 61)과 이주행(2009: 147-150)에서 지적했듯이 ‘것’, ‘터’, ‘수’, ‘줄’, ‘성’ 등은 항상 관형사형 어미를 선행 성분으로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존명사의 전형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 ‘마련’은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9) 가.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산/*사는/*살} 마련이다.

〈이주행 2009, 非文〉

나.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살기 마련이다. 〈作例〉

안효경(2001) 및 이주행(2009)의 견해도 일리가 있으나 ‘마련’을 자립명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통사적 특성에서는 전형적 의존명사와 괴리가 있지만, [당연함], [정도], [상태] 등 추상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의존명사와 비슷하다.

위에서 살펴본 ‘법’과 ‘마련’의 의미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명사‘법’과 ‘마련’의 의미 특성

형태	의미	확장 의미
‘법’	사회적 규범	방식, 방법
		이치, 도리
		습성
		당연함
		개연성
‘마련’	헤아려서 갖추	당연함
		정도, 상태

2.4. 용언 ‘이다’

표 4에서 제시하듯이 남길임(2003)은 ‘이다’ 구문을 ‘N₁이 N₂이다’의 유형과 ‘N₁이다’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N₁이 N₂이다’의 유형을 5가지로, ‘N₁이다’의 유형을 2가지로 세분화했다.

‘는 법이다’는 일견 표 4의 유형 3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는 법이다’는 표 4의 유형 3과 다르다. 남길임(2003: 258)에 따르면 표 4의 유형 3의 경우 주어 명사를 표제 명사로 한 관계관형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는 법이다’에는 그러한 통사적 특성이 없다.

(10) 가. 나도 내일 아침에 떠날 계획이야. <남길임 2003>

나. 내일아침에 떠날 계획인 나. <남길임 2003>

라. 참고 건디면 좋은 시절이 오는 법이다. <6BE00003.txt>

마. *참고 건디면 오는 법인 좋은 시절. <非文>

‘는 법이다’의 경우 관형화가 어렵지만 ‘기 마련이다’의 경우 아래의 예문 (11가, 나)와 같이 관형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1) 가. 자금 수요가 많아 늘 돈이 부족하기 마련인 기업의 자금 부족액은 1분기의 20조원에서 2분기엔 3조 2,000억 원으로 급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7BA03A05.txt>

나. 본래 게으른데다 패자가 있어야 승자가 있기 마련인 게임을 즐길 줄을 모르는 성격이라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릴 수도 있구나, 하며 쳐다보는 편이었다. <BRAB0169.txt>

표 4. ‘이다’의 구문 유형(남길임 2003)

유형	기술내용
‘N ₁ 이 N ₂ 이다’	1. (주로 체언 뒤에 써서) 가. 어떤 특성이나 속성이 있다. 나. 무엇과 지시적으로 동일하다.
	2. (일부 서술형 명사 뒤에 써서)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상태에 있다.
	3. (‘-(으)ㄴ 계획/작정/생각이다’와 같이 써서) 주어가 어떤 심리적 상태나 상황에 있다.
	4. (체언, 부사, 구 등과 함께 써서) 주어가 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5.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N ₁ 이다’	6. (발화 현장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체언 뒤에 써서) 어떤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감탄이나 놀라움 등을 나타낸다.
	7. (발화 현장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체언 뒤에 써서) 어떤 대상을 제시하거나 알리는 뜻을 나타낸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만 쓰이며, 주로 구어에서 쓴다.)

임근석(2012: 317-318)은 “나는 그 결정에 반대이다”와 같은 문장의 ‘나’와 ‘그 결정’은 ‘이다’의 논항(argument)이 아니라 ‘반대’의 논항이라고 했다. 즉, 이 문장에서 ‘반대’라는 술어명사로 인해 논항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다’의 어휘적 의미는 없고 동사의 기능만 가진 것으로 본 것이다. 나아가 임근석(2012)는 문법적 연어 ‘-(으)ㄴ 것이다’의 ‘이다’ 역시 기능동사로 보았다. 의존명사 ‘것’의 경우는 ‘반대’와 달리 술어명사로서의 기능이 희박하지만 ‘-(으)ㄴ 것이다’의 경우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해 하나의 덩어리처럼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으)ㄴ 것이다’의 ‘이다’ 역시 기능동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개관했듯이 ‘법’과 ‘마련’은 의존적 특성을 가진 명사이며, [당연함]과 같은 추상적 의미를 표현한다. 예문 (12가, 나)와 같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 구성으로 하나의 단위처럼 기능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게 된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다’가 기능동사로 작용함으로써 ‘법’과 ‘마련’ 자체에는 본래 없었던 서술성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가.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환락에 빠져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법이다.

〈BRHO0392.txt〉

나. 일부 나라들에선 케이블 TV의 갑작스런 도입이 이른바 문화 제국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BRHO0114.txt〉

3. 선행연구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이곳에서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다룬 선행연구의 주장을 검증하고 미비하거나 반증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각 문법적 연어의 통사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검증 대상이 되는 선행연구로 이양희(2005), 이금희(2012), 다카치(2014)를 선정했다. 이 선행연구들은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비교함으로써 양 형태 간의 기능적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논증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1. ‘는 법이다’의 통사 및 기능적 특징

먼저 ‘는 법이다’가 사용되는 문장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양희(2005: 273) 및 다카치(2014: 157)에 의하면 ‘는 법이다’는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 어미와 같은 것에 쓸 수 없다고 했다. ‘는 법이다’에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는 것은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 어미를 취하지 못하는 ‘이다’의 통사적 특성에 기인한다. 감탄형과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는 것은 ‘는 법이다’의 기능에 기인한다. 이양희(2005: 273)이 지적했듯이 명제 내용을 보편적 진리로 화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통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다’라는 명제는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있는 진리이며 화자가 이러한 명제를 새로 알게 되거나, 명제의 진의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는 법이다’에는 감탄형과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는다.

- (13) 가.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 법이구나. 〈作例, 非文〉
- 나.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 법입니까? 〈作例, 非文〉
- 다.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 법이십시오. 〈作例, 非文〉
- 라.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 법입니다. 〈作例, 非文〉
- 마.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 법일게. 〈作例, 非文〉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수집한 예문 중에 ‘는 법이다’가 의문형 어미 ‘-(으)ㄴ가’와 결합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아래 예문 (14)에서 화자는 본인의 상식과 괴리가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형 어미 ‘-(으)ㄴ가’는 수사의 문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한 의심을 표현하고 있다. 본래 ‘는 법이다’는 청자에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14)와 같은 수사

의문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는 법이다’에 전접(前接)하는 명제는 화자의 상식이나 보편적 진리와 어긋나는 비상식적 내용이어야 한다. ‘-는 법이다’가 수사의문문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지적된 바가 없지만, 이것은 ‘-는 법이다’가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 (14) 내가 이 방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못 마땅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곳에서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는 법인가?

〈2CG00006.txt〉

다음으로 ‘-는 법이다’가 가지는 주어와의 공기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이금희(2012: 66-68), 다카치(2014: 158)에서 지적했듯이 ‘-는 법이다’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물을 주어로 공기시킬 수 없고 총칭성(總稱性)을 가진 주어가 와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는 법이다’가 보편적 진리나 상식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

- (15) 가. 민족은 하나가 될 때 더 커지는 법이다. 〈5BA01E10.txt〉

나. 인간은 누구나 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법이다.

〈BRHO0346.txt〉

총칭성을 가진 주어와만 공기한다는 ‘-는 법이다’의 특징은 공기하는 부사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 (16)이 보여주듯이 ‘-는 법이다’는 ‘누구나’, ‘언제나’, ‘어느 경우든’, ‘일반적으로’ 등 총칭성을 보유한 부사어와 잘 공기하며, ‘-는 법이다’에 전접하는 명제 내용이 보편적 진리나 상식임을 나타낸다.

- (16) 가. 누구나 자기의 절실한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4BH00015.txt〉

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가짜가 있는 법이다. 〈3BH40009.txt〉

다. 그렇다곤 하더라도 어차피 인생의 매사는 어느 경우든 한번에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없는 법이니까. 〈4BE01007.txt〉

라. 일반적으로 자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알맞은 생활 형태란 긴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형성되는 법이다. 〈2CH00020.txt〉

‘-는 법이다’는 위의 예문 (1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시간에 위치하는 개별적 장면에서는 명제를 언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는 법이다’에는 시간적 국소 한정성(時間的 局所 限定性: temporal localization)³⁾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는 법이다’의 이러한 특징은 ‘-는 법이다’와 선어말 어미 ‘-더-’의 결합이 상당히 제한적

3) 濱之上(1992: 8)에 의하면 ‘시간적 국소 한정성’이란 “어떤 사태가 시간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시간적 및 공간적 개념”이라고 한다.

이라는 통사적 현상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이미 다카치(2014: 157)에서 지적했듯이 ‘는 법이다’는 ‘-더-’의 전접 및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는 아래 예문 (17가)에서 보여주듯이 화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개별적 사태를 근거로 언급 내용이 사실임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의 전접하는 명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어떠한 장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개별적 사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더-’에는 시간적 국소 한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는 법이다’와 ‘-더-’의 결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17) 가. 그 젊은이도 교회 집사고 내 말을 잘 듣더라. <2CE00012.txt>

나.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더라는 법이다. <作例, 非文>

다. *사람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 법이더라. <作例, 非文>

또한 이금희(2012: 69-70)에 의하면 ‘는 법이다’는 선어말 어미 ‘-(으)시-’와 결합도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이 현상 역시 ‘는 법이다’와 ‘-(으)시-’의 기능적 특징이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으)시-’는 특정 개별 주어로 표현되는 인물의 행위나 상태를 높이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는 법이다’는 특정 개인을 주제로 한 명제를 대상화할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지적했다. 따라서 ‘는 법이다’와 ‘-(으)시-’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18) 가.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시고 항상 불쌍하고 딱한 생각만 나신 데요. <2CE00012.txt>

나. *사람은 안 자면 정신과 신체에 이상이 생기시는 법이다. <作例, 非文>

다. *사람은 안 자면 정신과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법이시다. <作例, 非文>

선행연구의 견해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는 법이다’와 선어말 어미 ‘-겠-’과의 결합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이양희(2005: 273)는 ‘는 법이다’는 ‘-겠-’과 결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금희(2012: 71)는 ‘는 법이다’와 ‘-겠-’의 결합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통해 검색한 결과 ‘는 법이다’와 ‘-겠-’이 결합한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이금희(2012: 71)에서 제시된 아래의 예문 (19)는 어색하고 ‘-겠-’을 제외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인다. ‘는 법이다’가 보편적 진리나 상식을 언급할 때에 사용된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는 법이다’에는 추측 표현이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는 법이다’와 ‘-겠-’의 결합은 규범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19) 용돈 챙겨주고 아저씨가 양육권 가졌다면 아줌마는 어땠을까. ⁷원래 눈앞에 없으면 더 소중한게 느껴지는 법이겠죠. <이금희 2012, 어색함>

3.2. ‘-기 마련이다’의 통사 및 기능적 특징

이미 이양희(2005: 273)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문장 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기 마련이다’는 ‘-는 법이다’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기 마련이다’ 역시 감탄형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 어미와 결합하는 것에 제약적이다.

- (20) 가.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 원하기 마련이구나. <作例, 非文>
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 원하기 마련입니까? <作例, 非文>
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 원하기 마련이십시오. <作例, 非文>
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 원하기 마련입니다. <作例, 非文>
마.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 원하기 마련일게. <作例, 非文>

이금희(2012: 68)에서 지적되었듯이 ‘-기 마련이다’는 전접하는 명제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아래 예문 (21가, 나) 처럼 ‘-는 법이다’와 마찬가지로 충칭성을 가진 주어와 공기되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21다, 라)와 같이 충칭성을 갖춘 부사어와 자주 공기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 마련이다’는 ‘-는 법이다’와 상당히 비슷한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1) 가. 인간은 이기적 존재요,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납용하거나 악용하기 마련이다. <2CH00011.txt>
나.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BRH00115.txt>
다. 동물은 일반적으로 계급 사회를 이루거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터’를 형성한 다음 ‘텃세’를 부려 가며 살기 마련이다. <BRH00430.txt>
라. 우리가 대가들의 그림을 보고 ‘나도 저렇게 그리겠다’고 쉽게 내뱉지만 막상 붓을 들면 욕심이 손보다 늘 한 발 앞서 가기 마련이다. <5BA01D03.txt>

또한 ‘-기 마련이다’는 선어말 어미 ‘-더-’와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는 법이다’와 비슷하다. 이것은 ‘-기 마련이다’가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 사실을 언급할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통사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 마련이다’ 역시 시간적 국소 한정성이 결여된 문법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다카치(2014: 163)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찾은 예문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질투 받기 마련이구나.”와 같은 예문을 근거로 ‘-기 마련이다’는 감탄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박재연(2006: 229)에 따르면 ‘-구나’는 화자가 직접적인 감각 행위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사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했다. 이러한 ‘-구나’의 기능적 특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을 나타내는 ‘-기 마련이다’와 조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몇 명의 한국어 모어화자에게 이 문장의 정문성(正文性)에 대해 문의를 보았더니 대부분 부자연스러움을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는 ‘-기 마련이다’가 감탄형 어미와 결합한 예문은 위의 문장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기 마련이다’와 감탄형 어미의 결합이 용인성(容認性)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가.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BRH00390.txt〉

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를 원하더기 마련이다. 〈作例, 非文〉

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 받기를 원하기 마련이더라. 〈作例, 非文〉

이금희(2012: 68-69)에서는 아래의 예문 (23)을 제시하면서 ‘-기 마련이다’가 선어말 어미 ‘-(으)시-’와 결합할 수 있음을 제시했으나,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는 회의적 입장을 취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기 마련이다’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 사실을 언급할 경우에 사용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규범적으로는 화자가 주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23)에서도 화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배우자를 잃은 남성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태를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것이며, 이 문장에서 ‘-(으)시-’를 사용함으로써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말하자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는 ‘-기 마련이다’가 ‘-(으)시-’와 결합된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 마련이다’와 ‘-(으)시-’의 결합에 대한 용인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의미한다.

(23)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를 잃고 부쩍 {؟높으시기 마련이죠/？높기 마련이시죠}.

〈이금희 2012, 어색함〉

3.3.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상이점

위에서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통사적 및 기능적 면에서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통사적 현상에 근거를 두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상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24가, 나)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한다.

(24) 가. 양태 기능을 가진 문법형태와의 결합 여부

나. 관형절 및 부사절에서의 출현 여부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양태 기능을 가진 문법형태와의 결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양희(2005: 280)에서 지적되었듯이 [당위성]을 표현하는 ‘-(어)야 하다’와 ‘-는 법이다’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어)야 하다’와 ‘-기 마련이다’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25) 가. 본래 욕이란 좀 유머러스한 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BRH00126.txt〉

나. *본래 욕이란 좀 유머러스한 데가 있어야 하기 마련이다. 〈作例, 非文〉

한편, ‘-겠-’, ‘-(으)ㄴ 터이다’, ‘-(으)ㄴ 것 같다’, ‘-(으)ㄴ 모양이다’ 등과 같이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⁵⁾의 문법형태와 ‘-기

마련이다'의 결합은 허용되지만, '는 법이다'의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26) 가.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마련이겠지요.

〈BRE00329.txt〉

나. 유머는 언제나 긴장의 완화, 위기의 회피와 맺어지기 마련일 테지만 그 유머의 속성이 죽음을 대하고서 더 한층 극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BRHO0388.txt〉

다. 흔들리지 않는 드라마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마련인 것 같아요.

〈CK000139.txt〉

라. 역시 쟁이에게는 도구가 들려졌을 때 또는 도구가 필요했었을 때 활력이 넘치기 마련인 모양이다. 〈BRHO0136.txt〉

마.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겠지요.

〈作例, 非文〉

바. *유머는 언제나 긴장의 완화, 위기의 회피와 맺어지는 법일 테지만 그 유머의 속성이 죽음을 대하고서 더 한층 극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作例, 非文〉

사. *흔들리지 않는 드라마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법인 것 같아요.

〈作例, 非文〉

아. *역시 쟁이에게는 도구가 들려졌을 때 또는 도구가 필요했었을 때 활력이 넘치는 법인 모양이다. 〈作例, 非文〉

위와 같은 통사적 차이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1에서 살펴보았듯이 '는 법이다'에 내포된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실성]을 표현하는 양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입장에서 현실로 간주되는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 '-는'이 사용되는 것이다. '는 법이다'가 [당위성]을 표현하는 '-(어)야 하다'를 전접시킬 수 있는 것은 '-는'의 기능과 '-(어)야 하다'의 기능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2.2에서 개관했듯이 '-기 마련이다'에 내포된 명사형 어미 '-기'는 [비현실성]의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에 전접하는 명제는 화자의 입장에서 비현실로 간주되는 사태이다. 이러한 '-기'의 기능적 특성은 '-는'과 상반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야 하다'가 '-기 마련이다'에 전접할 일은 없다. [추측] 기능을 가진 문법형식이 '-기 마련이다'에 후행할 수 있는 것도 '-기'의 [비현실]의 특성과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함을 함의시키는 [추측]의 특성이 조화가 되기 때문이다.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공통적으로 전접하는 명제 내용이 보편적 진리나 널리

5) 인식양태란 양태 개념의 하나이며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명제 내용에 대한 개연성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Halliday & Matthiessen(2004: 116)에 의하면 개연성 정도는 [당연], [개연], [가능]으로 등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알려진 사실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명사 ‘법’과 ‘마련’이 가진 [당연]의 의미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는’과 ‘-기’는 기능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는 법이다’는 [당위성]을 갖춘 문법형태 ‘-(어)야 하다’와 결합이 가능하며 ‘-기 마련이다’는 [추측]의 기능을 가진 문법형태와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관형절 및 부사절에서의 출현 여부를 통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 (27가~바)에서 보여주듯이 ‘-기 마련이다’는 관형절 및 부사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에 비해 ‘-는 법이다’는 그렇지 않다.

- (27) 가. 우리나라 남성이면 누구든 간에 조금씩 가지고 있기 마련인 가부장적 권위의 식을 그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내가 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

〈BRHO0115.txt〉

나. 본의야 어떤 것이든지간에 정론 화음의 저해, 마비, 오도를 초래하기 마련인 까닭이다.〈2CC00106.txt〉

다. 어쨌든 위기 의식이 심화되면 필수록 반동적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듯 뜻 있는 사람들의 줄기찬 ‘인문학 살리기’ 외침이 힘이 실릴 날은 언제일까? 〈4BJ01001.txt〉

라. *우리나라 남성이면 누구든 간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법인 가부장적 권위의 식을 그 남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作例, 非文〉

마. *사람은 안 자면 정신과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법인 까닭이다. 〈作例, 非文〉

바. *사람이 안 자면 정신과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법이듯 동물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살 수 없다. 〈作例, 非文〉

이러한 통사적 차이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보통 ‘명사 + 이다’ 구성은 ‘명사 + 인’이나 ‘명사 + 이듯’과 같이 관형절 및 부사절에서 사용되는 통사적 고유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는 법이다’의 경우 이러한 통사적 고유 특성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Hopper & Traugott(2003: 106-107)에 의하면 특정 언어 형태가 문법화를 겪으면서 형태적 혹은 통사적 고유 특성을 소실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라고 불린다. 한국어의 경우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유기적 결합체인 문법적 연어가 다수 존재하지만 문법적 연어로 구성된 후 해당 문법적 연어의 구성 요소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통사적 특성을 소실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으)ㄴ 것이다’나 ‘-(으)ㄴ 터이다’의 경우 역시 관형절이나 부사절에서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문법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는 법이다’가 ‘-기 마련이다’보다 문법화 진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양태 정도성 검증

이곳에서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degrees of modality)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법적 언어가 양태 문법형태로 볼 만한 통사 및 기능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에 앞서 본고의 양태관(樣態觀)을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4.1. 본고의 양태관

박재연(2006)에서는 양태를 양태소로 이루어지는 문법 범주로 정의했지만 본고는 이것보다 넓은 양태관을 취한다. 즉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된 양태소와 덜 진행된 문법적 연호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어 광의(廣義)의 양태 체계를 형성한다고 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다카치(2014: 25)에서 제시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Palmer(2001)와 Halliday & Matthiessen(2004)에 의한 양태관을 토대로 한국어의 양태 의미 실현 사실에 근거해서 설정한 양태 유형 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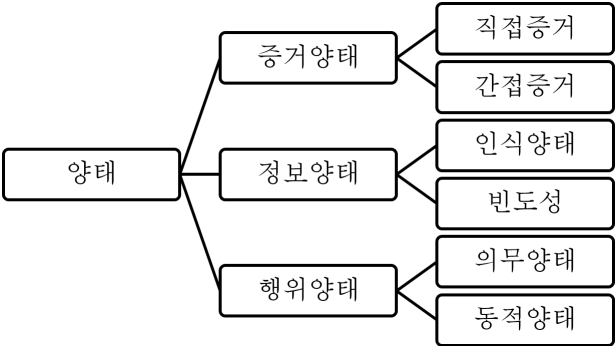


그림 1. 양태 유형 틀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양태는 1차적으로 증거양태, 정보양태, 행위양태의 3개로 분류된다. Halliday & Matthiessen(2004)의 양태 분류 틀에는 증거양태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어의 양태 체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증거양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 Haan(2005: 380)이 지적했듯이 증거양태와 인식양태는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증거양태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고 인식양태는 정보의 진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증거양태와 인식양태는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둘 다 양태 체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개념이다. 증거양태는 직접증거(direct evidence)와 간접증거(indirect evidence)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비가 오더라”에서 ‘-더-’는 ‘비가 옵’에 대한 직접증거(예: 비가 오는 장면을 화가가 직접 목격함)를 표현하고, “비가 왔더라”에서 ‘-(어)ㄸ더-’는 ‘비가 옵’에 대한 간접증거(예: 도로와 자동차가 젖어 있는 장면을 목격함)

를 표현한다⁶⁾.

정보양태는 인식양태(epistemic)와 빈도성(usuality)으로 구분된다. 인식양태는 명제 내용의 진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며 [당연], [개연], [가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겠-’, ‘-(으)ㄴ 것이다’ 등은 인식양태 기능을 가진 형태이다. 한편 빈도성은 명제 내용이 사실로 판단되는 빈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항상], [흔함], [가끔]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기 십상이다’, ‘-(으)ㄴ지도 모르다’ 등은 빈도성 기능을 가진 형태로 볼 수 있다. “혹시나 비가 올지도 모르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도 십중팔구 손실만 보기 십상이다” 등 문장에서 부사어 ‘혹시나’, ‘만의 하나’, ‘십중팔구’ 등은 명제 내용이 사실로 간주되는 빈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으)ㄴ지도 모르다’는 ‘혹시나’나 ‘만의 하나’와 같이 낮은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어와 공기가 잘 이루어지고, ‘-기 십상이다’는 ‘십중팔구’와 같이 높은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어와 잘 공기한다. 그러나 ‘-(으)ㄴ지도 모르다’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공기하거나 ‘-기 십상이다’가 낮은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어와 공기할 일은 없다. 즉, ‘-(으)ㄴ지도 모르다’와 ‘-기 십상이다’는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어에 대한 일정한 선택제약을 가진다. 이렇듯이 문법형태 중에는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어와 공기 관계를 맺어 명제 내용을 사실로 간주시키는 빈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있다.

세 번째로 행위양태는 의무양태(deontic)와 동적양태(dynamic)로 구별된다. 의무양태는 어떤 사건(event)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인이 행위주(agent)를 둘러싼 외적 구속력(사회적 혹은 윤리적 규정, 명령 등)임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등은 의무양태 기능을 가진 형태이다. 한편 동적양태는 사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인이 행위주에게 내재하는 추진력(능력, 의지 등)을 나타낸다. ‘-(으)ㄴ 줄 알다’, ‘-(으)려고 하다’ 등은 동적양태 기능을 가진 형태로 볼 수 있다.

4.2. 양태 정도성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명제 내용이 보편적 진리 혹은 일반적 사실임을 화자의 주관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인식양태와 빈도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명제 내용을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로 간주시킨다는 점에서 인식양태 [당연]의 특성을 보유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시간적 국소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적으로 명제 내용을 사실로 간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유사한 양태 기능을 갖춘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양태 정도성 관점에서 비교시키고자 한다. 양태 정도성이란 문법적 연어가 양태소와 어느 정도 근접

6) 박재연(2006)에서는 명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성 기능을 가진 양태소 ‘-더-’, ‘-구나’, ‘-(으)니-’, ‘-거든’ 등을 모두 인식양태로 보고 있으나 본고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증거성 기능을 가진 양태소는 명제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화자의 지각과 연관시켜 전달하는 뿐, 인식양태 기능을 가진 ‘-겠-’ 등 화자가 얻은 정보를 근거로 명제 내용의 진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증거성 기능을 가진 양태소는 증거양태에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⁷⁾. 양태 정도성을 측정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표 5⁸⁾와 같다. 우선 다카치(2016: 94-95)에 따라 표 5의 측정 기준 (가~라)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표 5의 (가)는 양태 정도성 측정 기준 중 필수적인 것이다. 양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문법적 연어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문법형식이 양태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증거양태, 정보양태, 행위양태 중 어느 하나라도 연관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표 5의 (나)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개입한 양태 의미만을 표현한다는 양태소의 핵심적 성격에 근거해서 설정한 기준이다⁹⁾. 따라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관련된 양태 의미만을 표현하는 문법적 연어는 양태소와 근접한 특성을 가진다.

표 5. 양태 정도성 측정 기준표

측정 기준		양태 정도성 판단	
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가?	O	양태적
		X	비양태적
나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는가?	O	양태적
		X	비양태적
다	부정형태의 작용 범위에서 벗어나는가?	O	양태적
		X	비양태적
라	과거 시제의 작용 범위에서 벗어나는가?	O	양태적
		X	비양태적
마	인식양태 혹은 빈도성 기능을 가진 타 문법형태의 후행이 제한적인가?	O	양태적
		X	비양태적

- 7) 본고는 양태 체계가 진정한 양태 표지(즉, 양태소)와 양태적 기능을 가진 유사 문법형태(문법적 연어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광의의 양태관을 취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선행연구에서도 양태소와 그 이외 문법형태를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했었으나 양태소와 양태 기능을 가진 유사 문법형태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었다. 본고에서 양태 정도성 측정 기준을 도입하는 이유는 양태 기능을 가진 문법적 연어가 양태소와 통사 및 기능적 면에서 얼마나 근접한지를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비슷한 양태 기능을 가진 문법적 연어 간의 미묘한 상이성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문 표 6에서 제시하듯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양태 정도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 8) 이곳에서 제시하는 양태 정도성 측정을 위한 파라미터는 다카치(2016: 95)에서 제시한 것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기존의 파라미터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양태 정도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9) 이미 다카치(2016: 9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모든 양태소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관련된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재연(2006)에서 양태소로 간주된 ‘-겠-’과 ‘-더-’를 예로 들어 보자. ‘-겠-’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을 통한 [추측]이나 미실현의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더-’는 명제와 관련된 화자의 직접 경험을 통한 증거성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양태 형식은 화자의 태도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자 이외의 주체와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 형태는 전형적 양태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표 5의 (다)는 양태소가 부정형태를 후행시키지 않는다는 통사적 특성에 근거해서 설정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겠-’, ‘-더-’, ‘-(어)야지’, ‘-(으)라’ 등을 비롯해 양태소는 부정형태 ‘-지 않다’나 ‘-지 못하다’를 후행시킬 수 없다.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양태소가 부정형태의 작용 영역에 들어가지 않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표 5의 (라)는 양태소가 과거 시제 형태 ‘-(어)ㅁ-’을 후행시킬 수 없다는 통사적 현상에 근거를 둔 기준이다. 양태소는 발화시점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고 높은 수행성(遂行性)을 보유하는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시제의 작용 영역에 들어가는 문법적 언어는 전형적 양태와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본고에서 새로이 추가한 측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5의 (마)는 양태소가 인식양태 혹은 빈도성 기능을 가진 타 문법형태를 후행시킬 수 없다는 통사적 특성에 근거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동적양태 기능을 가진 ‘-(으)ㄴ 것이다’와 ‘-고자 하다’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겠-’이나 ‘-기 십상이다’ 등 문법형식을 후행시킬 수 없지만 ‘-고자 하다’의 경우는 ‘-고자 하겠-’과 ‘-고자 하기 십상이다’와 같은 통사적 연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표 5의 (마)의 기준에 의하면 ‘-(으)ㄴ 것이다’는 양태 정도성이 높고 ‘-고자 하다’는 양태 정도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표 5의 기준에 따라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태 의미 표현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는 법이다’ 및 ‘-기 마련이다’는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며 인식양태의 [당연]과 빈도성의 [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는 법이다’ 및 ‘-기 마련이다’는 양태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통해 표현되는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은 항상 화자의 주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양태소와 비슷한 성격을 보유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정형태와의 결합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예문 (28가, 나)에서 제시하듯이 ‘-는 법이다’는 부정형태의 후행을 허용하지만 ‘-기 마련이다’는 허용하지 않는다. 즉 ‘-는 법이다’는 부정형태의 작용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태소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8가)의 예문과 같이 ‘-는 법이다’에 부정형태가 후행할 경우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용법이 가능한 것은 ‘-는 법이다’가 [현실성]의 특성을 가진 ‘-는’을 내포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 ‘-는 법이다’는 확고한 [당연]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정형태가 후행하게 되면 강력한 부정을 나타낸다. 한편 ‘-기 마련이다’가 부정형태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성]의 특성을 가진 ‘-기’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기 마련이다’에 전접하는 명제 내용은 일반적 사실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기’의 특성이 작용됨으로써 [비현실]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기 마련이다’는 [당연]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외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기 마련이다’에 부정형태가 후행하더라도 확고한 부정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성은 부자연스러운 연쇄가 되는 것이다.

(28) 가. 산이란 무너지는 법이 아니다. <6BG00002.txt>

나. *산이란 무너지기 마련이 아니다. <作例, 非文>

세 번째로 과거 시제 형태 ‘-(어)ㄴ-’의 후행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예문 (29가, 나)가 보여주듯이 ‘는 법이다’ 및 ‘기 마련이다’는 모두 ‘-(어)ㄴ-’을 후행시킬 수 있다. 과거 시제 형태의 작용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양태소와 성격이 다르다.

(29) 가. 후회는 항상 잘못된 선택 뒤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BEXX0012.txt>

나. 관료 지배층이 추진하는 자강 운동에 드는 비용도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BRH00106.txt>

마지막으로 인식양태 혹은 빈도성 기능을 가진 타 문법형태와의 후행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위의 3.3에서 살펴보았듯이 ‘는 법이다’는 인식양태 기능을 가진 문법형태를 후행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 마련이다’는 인식양태 기능을 가진 문법형태의 후행을 허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는 법이다’는 양태소와 비슷하지만 ‘기 마련이다’는 양태소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을 측정하면 표 6과 같다. 검증 결과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양태소와의 인접성이 높기는 하나 통사적 특징은 양태소와 어긋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의사적 양태 표지(擬似的 樣態 標識: pseudo-modal markers)로 볼 수 있다.

표 6. ‘는 법이다’ 및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

측정 기준		‘는 법이다’의 양태 정도성		‘기 마련이다’의 양태 정도성	
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가?	O	양태적	O	양태적
나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는가?	O	양태적	O	양태적
다	부정형태의 작용 범위에서 벗어나는가?	X	비양태적	O	양태적
라	과거 시제의 작용 범위에서 벗어나는가?	X	비양태적	X	비양태적
마	인식양태 혹은 빈도성 기능을 가진 타 문법형태의 후행이 제한적인가?	O	양태적	X	비양태적

5. 결 론

지금까지 통사 및 기능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유사점과 상이점, 양태 정도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의 견해를 검증 및 보완하기 위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기능적 특성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주장했듯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을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더-’와의 결합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가 공통적으로 시간적 국소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가 충칭성을 가진 명사를 주어로 취하거나 충칭성을 보유한 부사어와 공기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기능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는 법이다’가 ‘기 마련이다’와 달리 [당위성]을 표현하는 ‘-(어)야 하다’를 전접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구성에 내포되어 있는 관형사형 ‘는’의 [현실성]의 특성 때문이다. 한편 ‘기 마련이다’가 인식양태 기능을 가진 타 문법형태를 후행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구성 요소의 하나인 명사형 어미 ‘-기’의 [비현실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차이로 미루어 보아 ‘는 법이다’는 ‘기 마련이다’보다 확고한 [당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양태 관점에서 바라보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공통적으로 인식양태 [당연]과 빈도성 [항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태적 기능을 보유한 문법적 연어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의 근거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가 시간적 국소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충칭성을 보유한 주어나 부사어와 공기한다는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태소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을 근거로 설정한 양태 정도성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통해 명제 내용을 보편적 진리나 일반적 사실로 간주시키는 양태적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양태소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제 형태의 작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태소와 크게 다르다. 또한 ‘는 법이다’는 부정형태의 작용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기 마련이다’는 부정형태의 작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한편 ‘기 마련이다’의 경우 인식양태 기능을 가진 타 문법형태의 후행을 허용하지만 ‘는 법이다’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를 구성하는 요소 중 ‘는’과 ‘기’의 기능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양태소처럼 기능적 면에서는 양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통사적 특성을 보았을 때는 양태소의 전형적 특성과 괴리가 있다. 따라서 ‘는 법이다’와 ‘기 마련이다’는 의사적 양태 표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고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보정판)』, 서울: 태학사.
- 김일환 · 박종원. (2003). “국어 명사화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42, 141-177.
- 남기심. (2001).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 남기심 · 고영근. (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탐출판사.
- 남길임. (2003). “‘이다’의 용법과 사전 기출”, 『한국사전학』, 2, 247-273.
- 다카치 토모나리. (2014). “현대 한국어 문법적 언어의 양태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다카치 토모나리. (2016). “‘-(으)ㄴ 것아.’와 ‘-(으)ㄴ 터아.’에 대한 일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27, 87-118.
- 문숙영. (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서울: 태학사.
-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진호. (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 송창선. (1990). “명사화소 ‘-(으)ㄴ, -기’의 통사 특성”, 『국어교육연구』, 22, 211-230.
- 안효경. (2001).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염선모. (1995). “국어 ‘상’과 ‘시제’ 문제”, 『인문연구』, 17, 1-19.
- 이광호. (2001). 『국어문법의 이해 2』, 서울: 태학사.
- 이금희. (2012). “의존명사의 문법화 정도와 양태적인 의미”, 『어문연구』, 40(3), 57-89.
- 이양희. (2005). “한국어 ‘범이다’ ‘마련이다’의 의미용법”, 『언어과학연구』, 32, 269-284.
- 이익섭 · 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이주행. (2009). 『한국어 의존 명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임근석. (2008). “문법적 언어와 문법화의 관계”, 『국어학』, 51, 115-147.
- 임근석. (2012). “국어 {이다}의 어휘소 분할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299-329.
-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11-249.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서울: 탐출판사.
- 濱之上幸. (1992). “アスペクトとテキストの時間的構成について: 時間的局所限定性・タクシス性の観点から”, 『朝鮮學報』, 144, 1-86.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hristian M. I. M.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Hodder Arnold.
- de Haan, F. (2005). Typological approaches to modality. In Frawley, W., ed., *Approaches to Modality*, pp. 27-69. Mouton de Gruyter.
- Hopper, Paul. J. and Traugott, Elizabeth. C.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rank.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

말뭉치자료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 21세기세종계획최종성과물(2011.12. 수정판).

순번	말뭉치 관리 기호	원전 내역	예문 번호
1.	BRHO0105.txt	김홍규, 윤구병. (1994).『왜 사냐고 물어보면 한샘 미네르나문고 2』, 서울: 한샘출판주식회사.	(1)
2.	5BA01E07.txt	한겨레신문사. (2002).『한겨레신문 2001년 기사: 생활과학』, 서울: 한겨레신문사.	(2가)
3.	7BB03B07.txt	조선일보사. (2003).『주간조선 1741호』, 서울: 조선일보사.	(2나)
4.	2BH9217.txt	김병익. (1971).『두 열림을 향하여』, 서울: 솔출판사.	(3가) (3나) (3다)
5.	2BA93A24.txt	조선일보사. (1993).『조선일보 과학(93)』, 서울: 조선일보사.	(4가)
6.	BRAE0199.txt	조선일보사. (2001).『한겨레신문(1999) 사설』, 서울: 한겨레신문사.	(4나)
7.	6BE00003.txt	김종광. (2003).『미내기 블루스』, 서울: 창작과비평사.	(10라)
8.	7BA03A05.txt	조선일보사. (2003).『조선일보 2003년 기사: 경제』, 서울: 조선일보사.	(11가)
9.	BRAB0169.txt	동아일보사. (2003).『동아일보 문화(2002)』, 서울: 동아일보사.	(11나)
10.	BRHO0392.txt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발견으로서의 소설기법』,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2가)
11.	BRHO0114.txt	강준만. (1994).『대중 문화의 겉과 속』, 서울: 한샘출판사.	(12나)
12.	2CG00006.txt	신지식. (1991).『가려진 별들』, 서울: 삼성미디어.	(14)
13.	5BA01E10.txt	한겨레신문사. (2002).『한겨레신문 2001년 기사: 칼럼』, 서울: 한겨레신문사.	(15가)
14.	BRHO0346.txt	김양호. (2001).『화술과 인간관계』, 서울: 영인문화사.	(15나)
15.	4BH00015.txt	김윤식. (2001).『코로봇 거짓말 우리 소설의 정체』, 서울: 문학사상사	(16가)
16.	3BH40009.txt	이현주. (1991).『아무일도 안하고 잘 산다』, 서울: 녹두	(16나)
17.	4BE01007.txt	이호철. (2001).『아산타령 친족타령』, 서울: 창작과비평사.	(16다)
18.	2CH00020.txt	한완상. (1984).『민중사회학』, 서울: 종로서적.	16(라)
19.	2CE00012.txt	김원일. (1992).『그 곳에 이르는 먼 길』, 서울: 현대소설사	(17가) (18가)
20.	2CH00011.txt	고범서. (1978).『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1가)
21.	BRH00115.txt	유시춘, 양귀자. (1992).『여성 이야기주머니(콩트로 읽는 여성학 강의)』, 서울: 녹두.	(21나) (27가)
22.	BRH00430.txt	손일락. (1995).『식도락 보헤미안』, 서울: 새길.	(21다)
23.	5BA01D03.txt	중앙일보사. (2002).『중앙일보 2001년 기사: 기타』, 서울: 중앙일보사.	(21라)
24.	BRH00390.txt	북21. (2002).『고개과 경쟁하라』, 서울: 북21.	(22가)
25.	BRHO0126.txt	김용운. (1985).『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한길사.	(25가)
26.	BREO0329.txt	유기성. (1994).『아름다운 그 시작』, 서울: 심신각.	(26가)
27.	BRHO0388.txt	궁리출판. (2001).『메멘토모리』, 서울: 궁리출판.	(26나)
28.	CK000139.txt	이본, 대화자. (1998).『집중분석 드라마여행 98/06/07』, 서울: 현대방송.	(26다)
29.	BRHO0136.txt	봉두완. (1991).『안녕하십니까 MBC 전국프트를 봉두완입니다(봉두완칼럼)』, 서울: 성현출판사.	(26라)
30.	2CC00106.txt	설창수. (1986).『설창수 전집 5』, 서울: 시문학사.	(27나)
31.	4BJ01001.txt	bookoo.com. (2001).『서평』, 서울: bookoo.com.	(27다)
32.	6BG00002.txt	이어령. (2003).『뜻으로 읽는 한국어사전』, 서울: 문학사상사.	(28가)
33.	BEXX0012.txt	정도상. (1992).『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서울: 녹두.	(29가)
34.	BRH00106.txt	김홍규, 윤구병. (1994).『깊은 길을 따라 끝이 없고: 한샘 미네르나문고 1』, 서울: 한샘출판.	(29나)

다카치 토모나리(Takachi Tomonari)

34613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28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전자우편: tomonari_grandsamis@msn.com

접수일자 : 2018. 2. 28

수정본 접수 : 2018. 3. 22

게재결정 : 2018. 4. 12